

## ■ 연구원 소식

### ○ 3월 운영위원회 결과 안내

3월 28일(목) 18시 연구원 2차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강안 원장, 홍성덕부원장, 박용선, 김복례, 최우영 운영위원과 새로 위촉된 이정욱(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장근범(사진작가) 운영위원 등 모두 7인이 참석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9년 세부 사업계획과 전국회원모임 안건이 논의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4월 4일 연석회의에서 추가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으며 전국회원모임은 4월 3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4월 13일 전세버스를 이용해 행사를 진행하고, 전주로 오는 도중 천안에 위치한 <아라리오 미술관>을 관람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 연구원 전국회원 모임 안내

지난 3월 15일 연석회의에서 의결된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전국 회원 모임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19년 4월 13일(토) 09시~18시
- 장 소: 경기도 용인시 유일의료재단 하나애 요양병원
- 대 상: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회원
- 내 용: 왕기석 명창 공연, 전국회원 단합모임, 연구원 협약기관 개원 기념행사 참여 등

※ 4월 13일 오전 9시에 연구원에서 전세버스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전주에서 참석하실 회원께서는 4월 3일까지 연구원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사장으로 바로 오실 회원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916번길 48>로 오시면 됩니다.

### ○ 제3차 해외역사탐방 안내

2019년 해외역사탐방이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역사탐방은 우리 연구원 운영위원인 전북대 고려인연구센터 윤상원 소장께서 직접 기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와 러시아 연방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舊 소련의 레닌그라드) 답사를 통해 극동아시아 연해주에서 시작한 답사 길이 유럽의 발트해에 닿을 예정입니다.

탐방기간과 주요 방문지를 우선 공지해드립니다. 세부 일정 및 참가비는 윤상원 운영위원이 기획안을 완성한 이후 확정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탐방 기간

: 2019년 8월 1일(목) 13시 인천 공항 출발 - 16시 30분 모스크바 공항 도착  
2019년 8월 7일(수) 08시 모스크바 공항 출발 - 22시 45분 인천 공항 도착

#### 주요방문지

-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레닌 언더, 아르바트 거리
- 크레믈린 궁, 성바실리 사원, 붉은 광장, 레닌 묘지, 우주박물관
- 백호 김규면 장군 묘소, 전승기념관, 불쇼이 극장
- 에르미타주 박물관, 도스토옙스키 박물관, 성 이삭 성당, 카잔 성모성당
- 표트르대제 동상, 넵스키 대로, 구(舊) 대한제국공사관, 민영환 숙소
- 이범진 공사 거주지, 이범진 공사 순국지, 이범진 공사 묘
- 피터홀 요새 및 성당, 뱃머리 등대,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술인 묘지
- 상트페테르부르크 여름궁전, 네바강, 푸쉬킨 박물관

※ 이번 역사탐방은 전일정 숙식 제공, 4성급 호텔 2인 1실 제공, 전 일정 전세버스 제공,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삼산열차(고속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왕복 예정, 여행자 보험 가입 조건이며 이전 해외역사탐방과 마찬가지로 노옵션·노팁으로 진행됩니다.

## ■ 역사 속의 오늘

### 볼쇼이 극장의 프리마돈나, 별이 되다 (2007년 4월 5일)

그는 1949년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소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과 소련의 수교를 계기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인물로 소련 볼쇼이 오페라단의 전속 독창자이자 소련의 인민공훈배우였다.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다가 1970년 하바롭스크 음악 전문학교에 입학해서 성악을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23살이었다. 3년 뒤 학교를 졸업한 뒤, 다시 그네신스코 음악원에 입학해 3년을 더 수학했고 1976년부터 볼쇼이 극장 무대에 서기 시작했다. 그 무렵 차이코프스키 국립 음악원에 입학해서 또다시 공부한다.

이러한 끈질긴 성악 훈련은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되는데, 1977년 소련 전국 글린카 성악 콩쿠르에서 은메달, 1978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와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 비냐스 콩쿠르에서 잇달아 입상하는 화려한 성과를 일구어 낸다.

이러한 경력이 인정되어서 볼쇼이 오페라단의 제1 독창자에 임명되었고, 이어서 공훈배우의 칭호를 받았다. 풍부한 음량,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다양한 음색을 표현하는 컨트롤, 메조 소프라노이면서도 고음을 자유자재로 내는 발성을 구사했다.

"두만강 북쪽 핫산은 타향이었지만 그래도 정든 곳이었답니다. 10여년 공 들인 결과로 겨우 정착할 만하니까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총을 들이대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항의 한번 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원수인데도 그들은 우리 '고려인'이 일본인과 닮아서 일본의 간첩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죠. 농사꾼이었던 할아버지도 '일본의 앞잡이'라는 누명을 쓰고 총살당했습니다. 그들은 고려인들을 무조건 시베리아 횡단 화물열차에 태웠습니다. 고려인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짝이었습니다. 살림도구나 옷가지 몇 개 겨우 챙겨서 도착한 곳이 알마티이고 타슈켄트였습니다. 한달여간 달린 밤 기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1988년 9월 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 소련 대표로 서울에 온 그가 무대에 서서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이 살기 위해 러시아로 이주했던 선대들이 겪은 수난의 민족사였다. 풍부한 음량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소련 전국 글린카 성악 콩쿠르와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 입상한 볼쇼이오페라단 프리마돈나의 수준 높은 무대를 기대했던 서울의 관중들은 고려인 3세인 그가 먼저 쏟아내는 고려인들의 아픔을 들으며 무대를 잊고 눈물을 흘렸다.

한국인 아버지와 소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언제나 아버지의 나라 대한민국을 잊지 못했고 올림픽 덕분에 서울을 찾게 된 것이 꿈만 같았던 그도 성악 한 보람을 느낀다며 연방 눈물을 찍어냈다.

그가 내한공연을 오기 전까지 소련의 동포들도 중국 동포들처럼 '조선족'이란 이름으로 회자되고 있었다. '고려인'이라는 명칭은 그의 입을 통해 처음 한국에 알려졌다. 아버지의 나라를 유난히 사랑했던 그는 이름마저 소련식의 '루드밀라 남'보다는 한국식의 '남 루드밀라'로 불리길 원하며 자신을 소개할 때도 잊지 않고 남 루드밀라라고 했다.

1988년 첫 서울공연 후 그는 한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고려인의 사회적 환경 조성에 더욱 힘을 쏟았고 오페라 춘향전의 중국 초연 때는 월매역을 자청,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러시아 정부의 차별정책으로 동토의 땅에 쓰러져 간 한국인의 후손으로 태어나 가슴 속 깊은 곳에 한국인의 뜨거운 피를 간직하고 그 누구보다 아리랑의 한을 잘 풀어냈던 '러시아 인민예술가' 남 루드밀라가 2007년 4월 5일 별이 되었다.

## ■ 천년 암자에 오르다

<천년 암자에 오르다>는 우리 연구원 유영봉(전주대 교수) 평의원이 지난 2014년 흐름출판사(대표 한명수/ 연구원 前 운영위원)를 통해 출판한 책으로 천년의 역사를 지닌 열네 군데 암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영봉 교수 특유의 감수성 넘치는 글의 실타래를 따라가다 보면 낯설기만 하던 암자들이 오랜 벗처럼 다가와 참자유와 평화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뉴스레터를 통해 열네 군데 암자를 찾아 떠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단행본은 흐름출판사(063-287-1231)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부처님 사리모신 설악산 봉정암 첫 번째 이야기 - 백 개의 못을 세는 백담사

내설악의 명찰인 백담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의 말사로, 647년(진덕여왕1)에 자장율사가 창건하였다. 처음에는 한계령 부근의 한계리에 자리를 잡고 한계사라고 불렀는데, 690년(신문왕10)에 불타 버려 719년(성덕왕18)에 재건하였다. 한용운이 지은『백담사사적기』에 당시의 중건과 관련한 전설이 수록되어 있다.

지금의 화천군인 낭천현에 비금사가 있었는데, 주위에 짐승이 많아 사냥꾼들이 술하게 찾아들었다. 이 때문에 산수가 매우 부정해졌는데, 비금사 승려들은 그것도 모른 채 샘물을 길어다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불도에 어긋난 일들이 자행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산신령은 마침내 하룻밤 사이에 비금사를 설악산 대승폭포 아래의 옛 한계사 터로 옮겨 놓았다.

다음 날 승려와 과객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절은 분명 비금사가 틀림없지만, 주변에 기암괴석이 좌우로 늘어서고 폭포가 앞뒤로 쏟아져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였다. 대중들이 까닭을 몰라 어리둥절할 적에 갑자기 관음청조 한 마리가 허공으로 날아가면서 '낭천의 비금사를 옛 한계사 터로 옮겼노라.'하며 알려주었다. 이때 산신령은 하룻밤 사이에 절을 옮기는 과정에서 청동화로 하나와 절구를 떨어뜨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춘성군 절구골과 한계리 청동골 등의 지명이 이로 인해 생겨났다고 말한다.

여러 가지 구전으로 미루어 보면 비금사의 건물을 옮겨 한계사로 중창했다고 추정된다. 이후로 한계사는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며 운흥사·심원사·선구사·영축사 등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절들이 거꾸 화마의 밥이 되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화재를 만날 때마다 주지스님의 꿈에 도포를 입고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 절터를 옮기고 이름을 고쳐 보라며 알려주곤 했다고 한다.

1455년에 일어난 여섯 번째 화재로 영축사는 다시 불에 타 버렸고 이듬해에 옛 절터의 상류 20리 지점으로 이군해서 이름을 백담사로 바꾸었다. 백담사라는 이름이 붙은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 온다.

영축사가 다시 불에 타자, 주지스님은 이름이 잘못되었다고 여겨 이름을 고치고자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주지스님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대청봉에서 못을 세어 내려오다가, 백 번째 못이 있는 주변에 절을 건립하면 삼재를 면하리라.'하고 일러주었다. 꿈에서 깨어난 주지스님은 그 이튿날 대청봉에서부터 백 번째 못이 있는 현재의 자리에 절을 세우고 백담사라 이름을 지었다. 그 후로 화재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백담사는 설악산이라는 깊은 산중에 자리를 잡았다. 여기저기 산자락을 헤집고 내리는 물이 청아한 소리로 울려 퍼지는 달빛 별빛이 고운 자리를 차지하였다. 강원도 시인 이성선은 「백담사」를 이렇게 노래했다.

저녁 공양을 마친 스님이  
절 마당을 쓴다  
마당 구석에 나앉은 큰 산 작은 산이  
빛자루에 쏠려 나간다  
산에 걸린 달도  
빛자루 끝에 쏠려 나간다  
조그만 마당 하늘에 걸린 마당  
정갈히 쓸어놓은 푸르른 하늘에  
푸른 별이 돌기 시작한다  
쓸면 쓸수록 별이 더 많이 돌아오고  
쓸면 쓸수록 물소리가 더 많아진다

이성선은 1941년에 강원도 고성에서 태어나 평생 강원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다 세상을 떠난 시인이다. 2001년 5월에 결코 길지 않은 삶을 마치고 그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생전에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백담계곡에 뿌려졌다. 이제 그의 넋은 백담계곡의 아름다운 들꽃으로 피어나고 창공을 자유롭게 나는 산새가 되어 내설악의 아름다움을 언제나 만끽하리라.

- <천년암자에 오르다>는 앞으로 매주 뉴스레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게재를 허락해주신 흐름출판사 한명수 대표님과 유명봉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 주는 만해 한용운과 만나보겠습니다.

## ■ 후원사업 안내

###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제품”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 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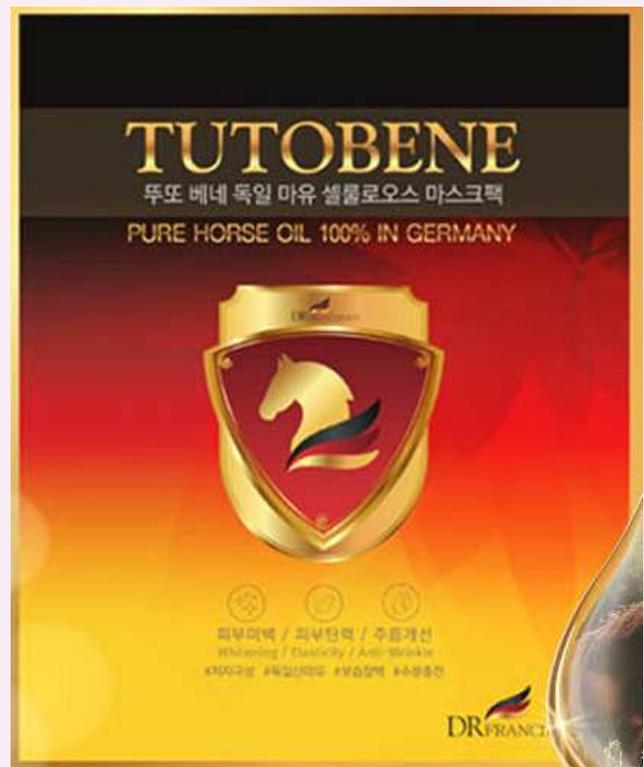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 ◎ 마유 팩 효능

- 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공해, 자외선,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 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 마유팩 25g \* 5매 >



< 마유팩 30g \* 5매 >

◇ 시 중 가 : 1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시 중 가 : 4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2만원

◎ **마유 샴푸 및 바디워시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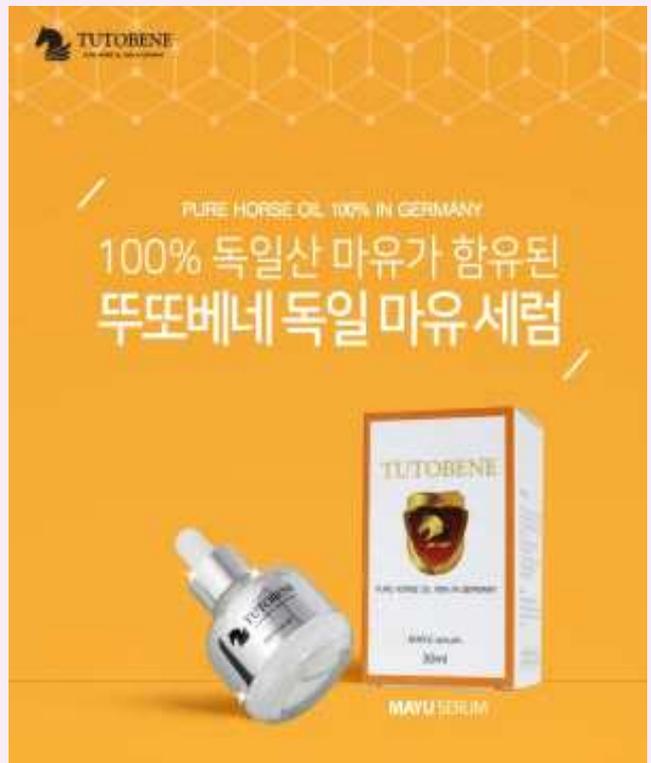
- 가려움 예방 및 피부 각질제거
- 두피관리 및 머릿결에 영양 공급
- 피부 활력 및 보습진정 효과

◎ **마유 세럼 효능**

- 피부 수분 및 영양 공급
- 고운 피부결과 화사한 피부톤 지원



< 마유샴푸 및 마유 바디 워시 >



< 마유 세럼 >

◇ 시 중 가 : 2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시 중 가 : 6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3만원

◎ 시중가는 현재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나 연구원을 통해 구입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